

독일 표현주의 건축의 재인식

- 한스 셔로운과 휴고 헤링의 작품을 중심으로 -
German Expressionist Architecture Reassessed
- Works of Hans Scharoun and Hugo Häring -

황보봉* / A. B. Hwangbo

Abstract

The artistic features of German Expressionism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re often recognized for its abstract and emotional representation in art and architecture. Expressionism departed from the paintings, notably the works of Der Blaue Reiter and the Brück, but the architectural works with curve and organic features were also taken as expressive. German architects Hans Scharoun (1893-1972) and Hugo Häring (1882-1958), in this regard, have long been regarded as Expressionist architects, but recent studies suggest that their architectural designs include a profound idea of modern functional building. Scharoun and Häring held a socialist utopian vision as other modernists have also had, but their inherent view upon modern architecture was function which was mistakenly viewed as Expressionism in earlier documents. This paper intends to exemplify how Expressionism is inappropriate to represent the expressive presentations of Scharoun and Häring. Despite the fact that their designs possess certain expressionist elements, their works can also be constructed as an advanced functionalism. Many young architects in Germany were not given chances to build due to economic hardship after the First World War, and they were naturally led to imagery sketch designs for future architecture. Abstract idea was freely exposed in its preliminary visual form, and it is also uneasy to draw a borderline between expressive presentation and the Expressionism itself.

키워드 : 표현주의, 근대 기능주의, 한스 셔로운, 휴고 헤링

Keywords : Expressionism, Modern Functionalism, Hans Scharoun, Hugo Här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식되는 독일 건축가 한스 셔로운(Hans Scharoun, 1893-1972)과 휴고 헤링(Hugo Häring, 1882-1958)은 표현주의 건축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수 년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들의 건축작품이 표현주의적 성향을 지닌 근대 기능주의 건축가로 수정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여전히 이들의 기본적인 설계성향은 표현주의 건축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

표현주의와 근대 기능주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물론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셔로운과 헤링 두 건축가를 표현주의 건축가 혹은 기능주의 건축가로 규정하고 동시대의 다른 건축가들과 평가르

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왜냐하면 이들 두 건축가가 활동했던 1920년대의 근대건축은 이렇다할 주도적인 방향성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형성기에 해당하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론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각축을 벌리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사조로서 표현주의를 건축에 집적 접목시킨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회화에서 출발한 표현주의라는 개념은 추상예술의 범주 안에서 실현가능한 현상이므로 구체적인 구조물과 실제의 기능을 담고 있는 건축물을 순수예술품과 같은 맥락과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개념적인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1919-33)에 발표된 한스 셔

* 정희원, 국립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건축학박사

1) Cruickshank, C., et al. Sir Banister Fletcher's Histor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96; P. Blundell-Jones, Hans Scharoun, Phaidon, London, 1995; S. Kremer, Hugo Häring, Karl Krämer Verlag, Stuttgart, 1984

로운과 휴고 헤링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근대건축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시함으로써 서로운과 헤링의 건축작품들이 특정한 이름표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쉽사리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의 것임을 밝히려고 한다. 또한, 이들 두 건축가의 건축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의 건축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 표현주의 건축으로 알려진 많은 건축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새로이 넓혀줌으로써 표현주의 건축 전반에 대한 재인식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들 두 건축가의 작품이 표현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진보적인 근대 기능주의적 작품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이들의 작품들이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재해석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독일 건축가 한스 서로운과 휴고 헤링이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에 발표한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절차상으로는 미술사조의 하나로 등장한 표현주의와 종합예술인 건축이 어떻게 상호연관을 맺게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한계를 짚어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써 한스 서로운과 휴고 헤링의 건축작품들이 표현주의의 개념상의 규정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혹은 상이한지에 대해 고찰했다. 두 건축가의 작품들은 1920년대에 발표된 건축작품들중 감성적인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난 것들로 예술사조로서 표현주의의 개념과 실제의 건축작품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1920년대로 한정된 것은 표현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10년대 초반이후 근대건축에 있어 차용되기 시작한 시기로 설정했으며 두 건축가는 독일의 국수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1930년대 이후 거의 작품활동을 하지 못했다.²⁾ 두 건축가의 작품의 수가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표현주의 건축 전반에 대한 일반화는 배제하고자 한다.

2. 예술사조로써 표현주의의 개념

표현주의 건축(Expressionist Architecture)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문학과 미술사조의 하나인 표현주의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주의(Expressionismus)는 1905년부터 1920

년대 초반까지 북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예술사조의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다. 건축에 있어서는 아르누보 이후 표현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다. 1911년을 전후하여 독일의 화단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주의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미술상 카쉬러 (Paul Cassirer, 1871-1926)의 경우에는 뭉크 (Edvard Munch, 1863-1944)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표현을 지적하고 인상과 화가들의 작품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예술사가 보링어 (Wilhelm Worringer, 1881-1965)는 고흐와 세잔, 마티스와 같은 인상과 작가들의 예술적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표현주의를 사용하기도 했다.³⁾ 독일어에서 표현(ausdruck)과 인상(aufdruck)은 한국어나 영어에서와 달리 상호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용어의 개념규정없이 사용된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와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표현주의라는 용어는 미술에서 각기 의도하는 바가 다른 개별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두 수용하는 산만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표현주의 작가들을 대표하는 독일의 아방가르드 화가 조직 청기사단 (Der Blaue Reiter)과 다리파 (Die Brücke)는 1914년 페흐트 (Paul Fechter, 1880-1958)가 출판한 저서 「표현주의」(Expressionismus)를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⁴⁾ 1905년 드레스덴에서 4명의 건축학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다리파는 흔히 표현주의 사조의 등장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이해되며,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1920년경에 이르러 이 단체가 와해되면서 표현주의 또한 그 막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⁵⁾ 다리파와는 아주 대조되는 화법으로 비교되는 청기사단은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와 마르크 (Franz Marc)를 중심으로 독일 뮌헨의 슈바빙(Schwabing)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들을 지칭한다. 칸딘스키는 모든 작가들로 하여금 외부세상이 가져다주는 인상과 작가들의 내면의 세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리파 결성으로부터 10여년이 흐른 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과 동시에 표현주의라는 장르는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공공연히 인식되게 된다. 한편, 표현주의 건축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전쟁과 혁명으로 얼룩진 20세기 초반의 독일의 정치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친 뒤 어려운 시대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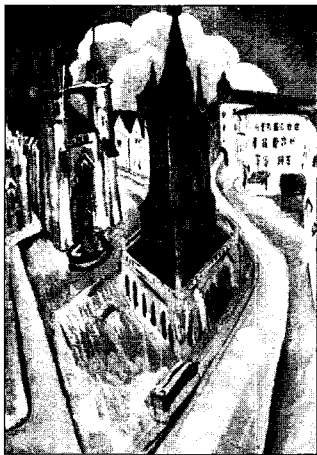
3)W. Worringer, Abstraction and Empathy: a contribution to the psychology of styl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1963

4)P. Fechner, Der Expressionismus. R. Piper & Co., München, 1914.

5)Fritz Bleyl (1880-1960), 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 Enrich Heckel (1883-1970) 그리고 Karl Schmidt-Rottluff (1884-1976)의 4명으로 구성된 다리파는 니체의 염세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W. Norbert, Expressionism. Taschen, New York, 2004; D. Elger, Expressionism. Taschen, New York, 1998

2)1933년 4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이후 한스 서로운과 휴고 헤링을 비롯한 근대건축가들 대부분은 극우나치정부와 이념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억압을 받게 된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바우하우스(Bauhaus)로 나치정권 등장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폐쇄되었다. 이후 그로피우스와 미스를 비롯한 많은 근대건축가들이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러온 사회변혁에 대한 욕구와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미래상이 겹쳐지면서 건축은 여타의 예술장르 이상으로 새로운 번영과 발전을 기대하던 독일인들에게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게 된다. 새로운 바이마르 공화국을 통해 번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된 독일사람들은 패전이 가져다 준 전근대사회에 대한 염증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개에 불구하고 표현주의는 예술사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스타일로 인정받는데 몇 가지 난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실제 작품에 있어서는 과거 화단의 표현방식과 중복되는 모습을 비치기도 한다. 극히 주관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우주적 진리 속에 포함된 개인을 드러내려는 모순적인 시도는 화면속 이미지를 찌그러지거나 왜곡되게 표현하는 형식을 통해 나타난다. (그림 1)



<그림 1> 「광장의 붉은 탑」
Der rote Turm in Halle Ernst
Ludwig Kirchner (1915년)

이것은 인간 외부의 물질세계와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리파의 이름 자체도 이러한 태도에서 기인한다. 같은 맥락에서 청기사단을 조직한 칸딘스키는 1911년 발표한 저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1912)을 통해 추상적 상징주의를 옹호하게 된다.⁶⁾ 표현주의가 지닌 주관적 속성에 반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중물성 (die neue Sachlichkeit)의 개념은 1923년 만하임 미술관 관장이었던 하트라우프 (G. F. Hartlaub)가 당시 화단의 경향을 기획전시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 원래 그의 의도는 새로이 발견된 즉물성을 지칭한 것이었으나 일반에게는 새로운 즉물성으로 이해되었으며, 표현주의는 즉물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⁷⁾ 이러한 맥락은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감정과 직관의 두드

6) W. 칸딘스키 (1912)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열화당 (2000) 권영필 역 참조
7) F. Schmalenbach (1940) The Term Neue Sachlichkeit. In Art Bulletin 22, pp.161-165

러진 표현을 위해 형태를 일그러뜨리는 경향으로 표현주의 건축이 비취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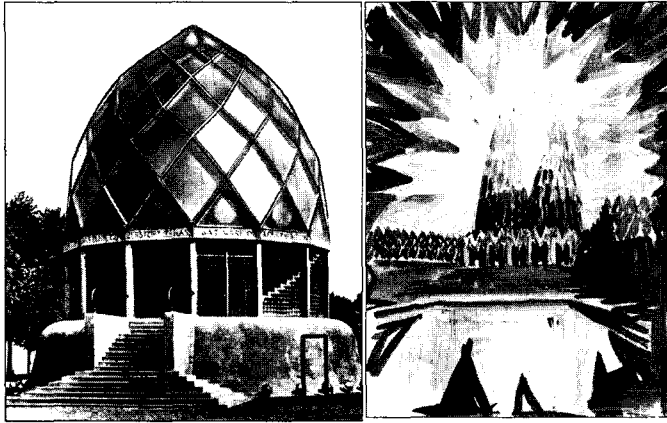
3. 표현주의 건축과 유기적 기능주의

인간내면의 정신세계와 외부의 물리적 세계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서 표현주의 예술을 받아들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추상적이고 왜곡된 건축물 스케치를 연계시킨다면 표현주의 건축은 근대건축으로서의 입지가 그리 넓지 않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근대건축사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장면 중 하나는 오늘 날 기능주의 건축가와 표현주의 건축가로 각기 달리 평가받고 있는 많은 건축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같이 표현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표현주의는 많은 근대건축가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며, 그것은 또한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표현주의적인 태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점차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자면 피터 베어런스 (1868-1940), 발터 그로피우스 (1883-1969), 미스 반 데르 로에 (1886-1969), 에릭 멘델존 (1887-1953), 브루노 타우트 (1880-1938), 휴고 헤링 (Hugo Häring, 1882-1953) 그리고 한스 셔로운 (1893-1972) 은 각자의 건축적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대건축의 태동기인 1920년대 이전에는 공통적으로 표현주의적인 건축의 매력에 심취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이 끝난 뒤 황폐화된 독일경제는 건축계에 특히 치명적이어서 젊은 건축가들에게는 매우 암담한 시기였다. 실제 건축물이 거의 지어지지 못하던 시기, 독일 건축가들은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건축과 유토피아에 관해 탐닉하게 되었다. 폴 슈바트 (Paul Scheerbart, 1863-1915)의 소설에 나타난 유리로 만들어진 집은 새로운 건축을 갈망하던 당시의 독일 근대건축가들을 자극했으며, 타우트와 셔로운은 물론 멘델존과 핀스틸린 (H. Finsterlin, 1887-1973), 루크하르트 형제 (Hans Luckhardt, 1890-1954, Wassili Luckhardt, 1889-1972), 그리고 그로피우스와 미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환상적 공간에 일순간 사로잡히고 말았다.⁸⁾ 특히, 1919년 브루노 타우트에 의한 그라스 체인 (Gläserne Kette)의 형성은 그 시기 독일 건축가들의 이상향을 대표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14년 독일공작연맹전시회에 출품한 타우트의 유리의 집 (Glass Pavilion)과 그라스 체인 회원들에게 보낸 셔로운의 스케치 작품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림 2, 3) 하지

8) 폴 슈바트는 건축에 의해 미래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녔던 인물로 1904년에 발표한 작품 「The Emperor of Utopia」를 통해 기존의 상투적인 예술행위와 통속화되어가는 사회상을 비판하기도 했다. 슈바트는 아방가르드 예술을 통해 이상적인 근대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으며, 유리건축은 그 이상을 물리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만, 이런 환상속으로의 여행은 잠시일 뿐, 이상적인 미래건축을 향한 이들의 의지는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또 다른 형태로 결집되게 되는데, 1927년 독일공작연맹의 바이센호프 전시회와 1928년 CIAM의 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뉴욕의 국제주의 건축전시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2> 「유리의 집」 Glass Pavilion
Bruno Taut, 1914

<그림 3> 「수채화」 Watercolour
Hans Scharoun,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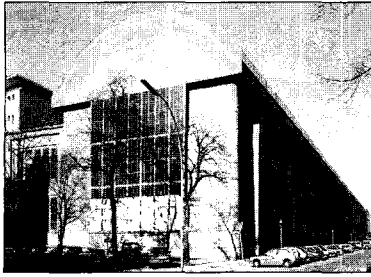
국제주의 양식으로 대변되는 근대 기능주의 건축은 흔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기계생산에 의한 공장 기성재의 적용, 그리고 철과 유리, 콘크리트와 같은 신재료의 사용으로 이해된다. 그 반면, 표현주의 건축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스케치와 기하학적인 구성을 벗어난 설계방법으로 인해 감성과 직관에 호소하는 비이성적인 건축관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렇게 두 개의 구별되는 건축관으로 근대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은 건축사가인 니콜라우스 페브스너와 지그프리드 기테온의 저서에서 비롯된다. 페브스너는 저서 「근대디자인의 선구자들」(1960)에서 그로피우스의 건축을 진실한 근대 기능주의 건축이라고 파악한 반면, 휴고 헤링을 비롯한 한스 셔로운과 에리히 멘델존, 브루노 타우트 등은 개인적인 감성과 직관을 건축에 반영한 표현주의자들로 이름붙이고 있다.⁹⁾ 기테온은 「공간, 시간, 건축」(1941)에서 표현주의 건축은 건축계에 있어 좋지 못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¹⁰⁾ 그는 국제주의 양식을 추구한 건축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대 건축가들을 함께 묶어 모두 표현주의자로 규정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조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근대건축의 주된 흐름을 CIAM의 결성으로 비롯되어 국제주의 건축전시회로 연결되는 주류 기능주의 건축가들과 감성과 직관에 사로잡혀 근대건축의 향방을 파악하지 못한 표현주의 건축가들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¹¹⁾

표현주의 건축(Expressionist Architecture)으로 불리게 된 이들의 초기작품이 표현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20년대를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이들의 건축 성향을 페브스너와 기테온은 간과하고 있다. 이들의 건축은 표현주의적인 요소를 지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건축관은 기능성에 근거한 것으로써 근대건축이 추구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이들 건축가의 작품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미학적 부분(표현적인 특질)에 의해 전체(기능적 건축)가 바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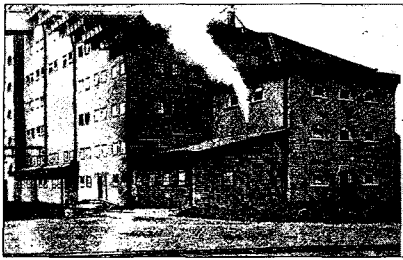
또 다른 측면에서 국제주의 양식과 헤링이 추구한 신건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근대건축의 “기능성”(functionality) 자체가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¹²⁾ 대체로 근대건축 전반이 추구했던 새로운 건축의 가치는 바로 기능성이었다.¹³⁾ 이런 시각에서 건축사학자 아돌프 베네(Adolf Behne, 1895-1948)는 헤링과 셔로운의 건축을 기능성에 근거한 것으로써 미스와 그로피우스의 합리주의 건축과 함께 근대건축의 양대축으로 파악하기도 했다.¹⁴⁾ 사학자 베어런트(Walter Curt Behrendt, 1884-1945) 역시 헤링의 건축을 기능에 근거한 우수한 건축이라고 평가했으며, 셔로운과 멘델존 그리고 폴지히 등을 동질한 성격을 지닌 건축가들로 이해했다.¹⁵⁾ 베어런스의 AEG 터빈공장(1908-09)과 그로피우스의 파구스 공장(Fagus Factory, 1911) 그리고 폴지히의 화학공장(Chemical Plant, 1912)과 멘델존의 아인슈타인 탑(Einstein Sturm, 1919)은 같은 시기 이들 두 건축관을 대조적으로 잘 대변하는 작품들이다. (그림 4, 5) 그로피우스는 이후 3월 운동 기념비(March Rising Cenotaph)와 소머펠드 주택과 같은 표현주의적인 성향의 작품을 선보이지만 1923년 이후 네덜란드의 데 스틸 운동에 영향받아 곧 공업생산방식에 의한 건축의 모듈화와 대량생산으로 관심을 옮겨간다.

11)옥스퍼드 건축사전과 펄컨건축사전에는 표현주의 건축을 정의함에 있어 기능에 한정되기 보다는 자유롭고 강한 조형성이 돋보이며 감성적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J. Fleming, et al., The Penguin Dictionary of Architecture, Penguin, London, 1991, pp.150-151; J. S. Curl, Oxford Dictionary of Archite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234-235
12)S. Anderson (1985) The Fiction of Function. in Putting Modernism in Place. Texas A&M University, pp.27-32
13)하네스 하네스 마이어(Hannes Meyer, 1889-1954)가 만들어 낸 공식 “건축(building)=기능(function)×경제(economy)”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14)A. Behne (1926) Der Moderne Zweckbau. Berlin: Drei Masken-Verlag
15)W. C Behrendt (1927) Der Sieg Des Neuen Baustil. Stuttgart: Fritz Wedekind & Co. 그리고 W. C. Behrendt (1937) Modern Building: Its Nature, problems, and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참조

9)N.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Penguin Books, London, 1960, p.217
10)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41, p.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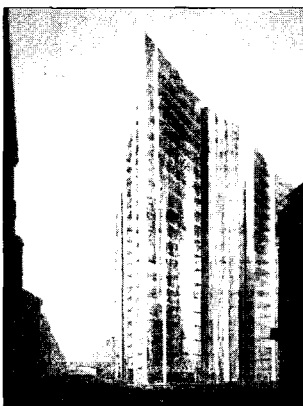


<그림 4>
「AEG 터빈공장」
Peter Behrens, 19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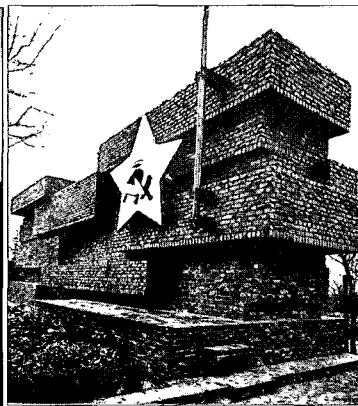


<그림 5>
「화학공장」
Chemical Plant at Luban
Hans Poelzig, 1912

한편, 페브스너와 기테온의 두 저서보다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히치코크의 경우에는 CIAM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지 않은 반면, 모든 건축가들을 표현주의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히치코크 (1929)는 1920년대 초기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을 두고 유사-유기적 (pseudo-organic) 이라고 기술했으며, 벤델존의 아인슈타인 타워에 근접한 표현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⁶⁾ 히치코크의 이 지적은 당시의 전반적인 건축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근대건축 초기에 대다수의 건축가들이 표현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놓치지 않고 파악한 것이다. 미스 반 데르 로에의 베를린 프리드리히가 사무소 계획안(1922)과 베를린에 소재한 리버네호트-룩셈베르크 기념탑 (Denkmal für Karl Liebknecht und Rosa Luxemburg (zerstört), 1926)은 그의 표현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좋은 사례이다. (그림 6, 7)



<그림 6> 「프리드리히가 사무소 계획안」
Friedrichstrasse Office Project
L. Mies van der Rohe, 1922



<그림 7> 「리버네호트와 룩셈베르크 기념비」
Denkmal für Liebknecht und Luxemburg
L. Mies van der Rohe, 1926

16) Henry-Russell Hitchcock Jr. (1929) Modern Architecture: Romanticism and Reintegration. NY: Payson and Clarke Ltd. (Reprinted by Hacker Art Books, NY, 1970), p.190

더불어 펜(Wolfgang Pehnt)이 출간한 「표현주의건축」(1973)은 타우트와 폴지히를 비롯해서 서로운과 한스 핀스틸런 그리고 루돌프 스타이너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축가들의 표현주의적인 경향을 구체적이고 제시한다. 그는 표현주의 건축이 언급된 많은 건축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표시한다.¹⁷⁾ 앞서 표현주의 화단에서 하나의 통일된 특징을 짚어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것처럼 건축가들의 성향 또한 극히 개인적이어서 그들의 건축작품 상호간의 유사한 형태와 경향을 지칭하는 것 이상으로 표현주의 건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랫동안 표현주의 건축가로 알려져 있으면서 또한 근대건축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온 독일 건축가 한스 서로운과 휴고 헤링의 건축은 표현주의 건축의 모호한 개념과 한계를 넘어 진보적인 근대 기능주의 건축으로써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4. 한스 서로운과 휴고 헤링의 유기적 건축

4.1. 한스 서로운의 작품

표현주의 건축가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스 서로운 (Hans Scharoun, 1893-1972)은 그의 디자인이 지닌 독특한 개성 덕분에 앞서 언급한 펜(Pehnt)의 저서 「표현주의 건축」 이외에도 콜러혼 (A. Colquhoun)의 근대건축 표지로도 사용되는 등 최근 수년간 기능주의 건축가로서 근대건축형성에 있어서의 공로와 가치를 새로이 인정받고 있다.¹⁸⁾ 서로운 건축에 대한 재평가는 많은 건축역사책들이 서로운 건축에 있어 초기 작품에 나타났던 과장되고 표현적인 부분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의 건축의 질적인 변화와 발전은 읽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서로운의 표현주의 건축은 1920년대 초반의 강렬하고 자극적인 스케치와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인 형태표현은 1920년대 말 이후 현저히 다른 차원의 기능과 질서를 의도한 작품들로 발전된다. 1927년 바이센호프 주택에 나타난 건축적 시도는 공장기성체를 이용한 근대적 건축생산방법에 구조적 근거를 두는 한편 타워부분에는 신재료로서 콘크리트의 물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건과 가족구조 그리고 실내와 외부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연결해놓은 평면계획은 거주자의 기능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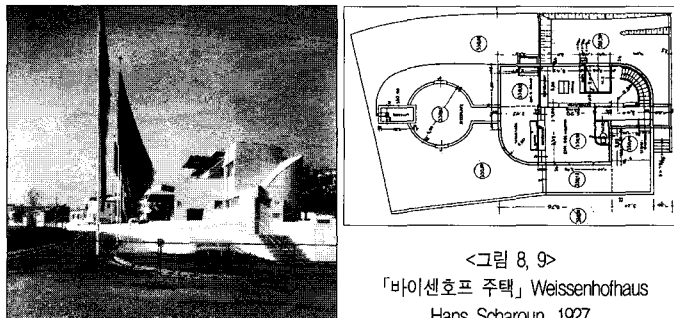
17) W. Pehnt, Expressionist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London, 1973, p.8; 이 책의 속표지로 사용된 서로운의 스케치 디자인 (1920)은 여러 표현주의 건축가들의 작품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한스 폴지히의 목탄화 스케치 (1920) 또한 속표지로 사용되었다.

18) A. Colquhoun, Modern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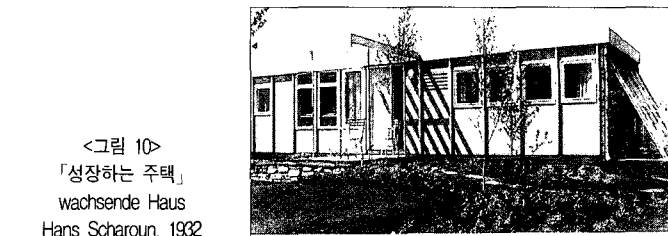
(그림 8, 9)

그로피우스가 생산과정의 합리성과 건식 시공방법에 주목한 것처럼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가 도미노 구조를 제안했던 것처럼 서로운 역시 구조적 합리성과 시공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서로운이 근대건축의 기술적·미적 감성을 상당히 품격있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점은 이후 그가 1932년에 설계한 「성장하는 주택」(wachsende Haus) 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베를린 무역전시회에 제한경쟁 공모작으로 출품된 이 계획안에서 서로운은 표준 디자인과 확장가능한 단위(unit)시공법을 채용함으로써 1세대 가족을 위한 주택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생산유닛별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이 목구조 주택은 가구의 크기에서 모듈을 추출했으며, 철저히 기계에 의한 생산방식과 건식시공 그리고 경제성을 우선으로 한 보급형 자가주택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¹⁹⁾

(그림 10)



<그림 8, 9>
「바이센호프 주택」 Weissenhofhaus
Hans Scharoun,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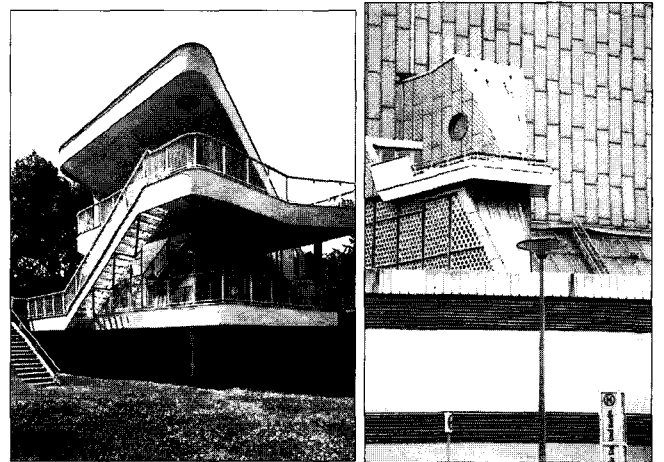


<그림 10>
「성장하는 주택」
wachsende Haus
Hans Scharoun, 1932

이러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서로운의 건축이 표현주의 건축으로 불리며 그 내면에 녹아있는 건축의지가 평가되지 못한 것은 우선 외관에 드러난 유기적인 특성이 매우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흔히 표현주의 건축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눈여겨본다면 그 주된 특징로서 경사지거나 굽어진 외관과, 부재 디테일에 나타나는 곡선적인 형태, 평면상에 나타나는 단차 내지는 軸선상의 변화, 재료사용에 있어 대조적인 사용, 급격한 스케일과 형태의 변화와 같은 자유로움을 꼽을 수 있다. 서로운의 건축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면서 또한 혼란을 가져다주는 이런 자유로움은 건축프로그램의 유기적 구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개인의 복잡/다재다능한 창의력을 보여

19)J. C. Bürkle, Hans Scharoun, Artemis, Zürich, 1993, pp.82-83

주는 개성적인 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펜(Pehnt)의 저서 「표현주의 건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특징은 표현주의 건축가라고 불리우는 이들 외에도 많은 건축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표현주의의 범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작품에서 그러한 특징이 상당한 빈도를 나타내야 한다.²⁰⁾ 동시에 그러한 빈도의 정도와 호소력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개별 건축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서로운의 건축디자인에서 일부 과장되고 어색한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의 건축작품에서 구현된 건축개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능을 주된 관심으로 하는 그의 작품에 작가적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운의 이후 작품에서도 유기적인 특성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항상 증장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32년 설계한 스밍크 주택(1932-33)과 베를린의 필하모니 콘서트홀(1956-63)은 30년 이상의 시차에 불구하고 서로운 건축의 특징이 잘 남아 있는 좋은 사례이다. (그림 11, 12)



<그림 11> 「스밍크 주택」 Schminke Haus
Hans Scharoun, 1932-33

<그림 12>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 Detail Berlin Philharmonie Concert Hall
Hans Scharoun, 195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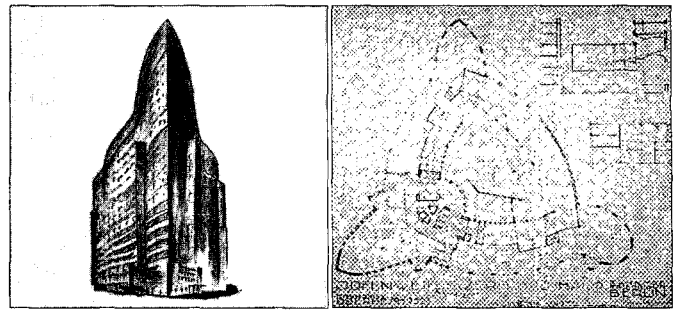
4.2. 휴고 헤링의 작품

서로운이 표현주의적인 스케치와 작품으로 유명세를 얻었다면 건축가 헤링은 건축작품보다는 유기적 이론(organisches Bauen)으로 더욱 잘 알려진 인물이다. 스투트가르트 공대에서 건축을 공부한 뒤 베를린에서 전위건축가그룹에 적극 참여하는 등 헤링의 건축적 관심은 예술(건축)을 통한 사회변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헤링의 건축이론은 1920년대 베를린에서 미스와 함께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던 때부터 비롯되는데, 미스 또한 건축을 통한 사회개조라는 아방가르드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주 사람은 당시의 중요한 전위 예술가 그룹이던 노뎀버그(Noembergruppe)의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때의 활동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주축이 된 또 다른 전위 건축

20)W. Pehnt, op. cit., 1973, pp.7-8

가그룹 데르 링 (Der Ring)의 결성이 되었으며, 이후 코르뷔지에 등이 참가한 CIAM의 결성으로 전개되었다.²¹⁾ 헤링과 미스는 1921년부터 1928년까지 베를린에서 함께 건축사무소를 사용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지만, 두 사람이 지냈던 건축관은 같은 기간 전혀 반대방향으로 발전되어 간다.²²⁾

1925년 헤링은 “형태로의 접근” (Wege zur Form) 이라는 논문을 통해 건축의 형태는 설계과정을 통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건축가가 찾아내어야 하는 과제이며, 만일 특정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건축물에 부과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인간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³⁾ 코르뷔지에와 미스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건축형태에 관해서 회의적이었던 헤링은 표준화 혹은 합리성이란 미명아래 획일적인 질서를 공간에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건축가가 인위적으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건축물 본래의 기능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생산과정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대한 논의를 근대건축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헤링의 견해는 1920년대 초반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던 미스의 건축과 대조를 이룸으로써 근대건축의 주요한 두 가지 상반된 설계경향이 같은 공간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근대건축의 아이러니한 단면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헤링이 디자인했던 프리드리히가 프로젝트에는 불규칙한 삼각형의 대지에 20층 높이의 사무소를 건축하는 계획안이 담겨있지만, 외관 이미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림 13) 이런 문제는 표현주의 건축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지만, 그의 이론대로 건축물의 형태가 설계의 진행과정속에서 창출되는 것이라면 짧은 시간에 준비된 계획설계는 추상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실제, 외관의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추상적인 혹은 표현주의적인 특성에 불구하고 헤링이 제출한 평면도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4) 유선적인 형태로 역시 표현주의적인 특징으로 불릴 평면도에는 일층과 기준층을 별도로 계획해 놓았으며, 중앙의 코어계획도 제안되어 있다. 추상적이고 왜곡된 스케치의 외관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사무소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실내 배치계획과 구조계획을 염두에 둔 코어의 설치에 헤링의 건축이 직관과 감성에 치우친 표현주의 건축이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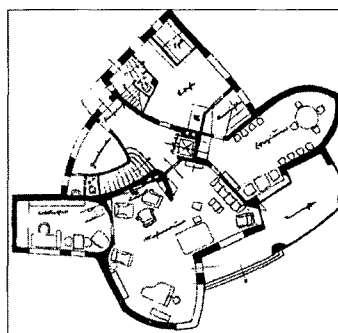


<그림 13> 「프리드리히가 사무소 계획안, Hugo Häring,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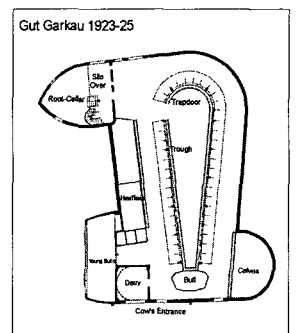
<그림 14> 「프리드리히가 사무소 계획안, 평면도 Hugo Häring, 1922

함께 제출되었던 미스의 디자인 또한 상당히 표현주의적인 경향의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20층 규모의 고층사무소 프로젝트는 철골구조와 유리 패널로 만들어진 비내력 구조벽 (curtain wall)을 연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구조체의 건축적 표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능과 외관 이미지가 자유로이 분리되도록 해 놓았다. 당시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근대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이 프로젝트는 건축물의 외피를 구성하는 벽체가 구조체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아 고정적이고 구축적이던 건축물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실내외가 시각적으로 관통되는 부드러운 것으로 전환되었다. 미스는 이러한 시각적 투시효과를 정점으로 부드럽고 경쾌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리로 건물외관 전체를 감싸는 대담한 시도를 했다.

미스와 헤링의 구체적인 차이는 바로 이러한 생산과정과 시공과정상의 기계화 및 공업화를 통해 기능적으로 건축을 완성하겠다는 미스의 의도와 실제 건물의 성능과 기능에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한 헤링의 방법론상의 차이 바로 그것이었다. 의견상 드러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기능적인 공간의 창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베를린의 같은 공간속에 등지를 둔 두 사람이지만, 이후 두 사람이 지낸 건축관은 근대건축이론에 있어서 극과 극을 이룰 정도로 대조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1923년 미스가 벽돌조 주택안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때, 헤링의 빌라계획안은 기능적 건축의 완성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유기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림 15)



<그림 15> 「빌라」 Villa 평면도 Hugo Häring, 1923



<그림 15> 「갈카우 농장」 Gut Garkau 평면도 Hugo Häring, 1923-25

21)바이센호프전시회를 통해 노출된 두 사람의 갈등은 CIAM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큰 견해를 노출시켜, 결국 헤링은 CIAM성립이후 더 이상 참가하지 않는다. CIAM 결성이후 근대건축의 향방은 1932년 뉴욕근대미술관의 국제주의건축 전시회를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2)스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독일공작연맹의 바이센호프 전시회에 관한 견해차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해 결국 서로 등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만다. 자세한 내용은 R. Pommer et al., Weissenhofsiedlung 1927 and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w York, 1991 그리고 K. Kirsch, Weissenhofsiedlung Rizzoli, New York, 1989 참고

23)H. Häring, Wege zur Form. In Die Form, 1925, Vol. 1

기능을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헤링의 열정은 뤼벡(Lübeck) 근처 갈카우에 지어진 농장건물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림 16) 갈카우 농장(Gut Garkau, 1923-25)은 헤링이 주장한 새로운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외부의 형태는 고딕의 첨두 아치 형태를 띠고 있어 고딕 리바이벌의 영향도 찾아볼 수 있다. 평면도에 나타나는 고딕리바이벌풍의 특징은 표현주의의 속성으로 오역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특정한 형태는 가축의 움직임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라고 한다. 농장의 내부 공간은 정확히 42마리의 소와 황소의 사육에 필요한 공간과 건초의 운반과 청소, 그리고 빗물받이 설치를 고려한 경사진 평면을 만들고, 병원체 감염을 막기 위한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농장으로서의 기능을 건축적인 형태로 구체화시켰다. 헤링의 갈카우 농장에서 읽을 수 있는 건축의도는 유선적인 평면의 표현을 위해 구조와 공법의 근대적 편의성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사육되는 가축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대적으로 반영한 기능적인 공간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면에서는 가축의 사육에 관해 정확한 수치와 기능적 요구를 단정하고 나서는 사고방식 자체가 기계적이고 근대적인 의식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딕아치를 포함한 여러 부분의 표현적인 성향은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부분적 특질로 이해된다.

헤링은 1934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도 시간과 공간이 유기적인 기관과 같은 구조(organische Raum)로써 필요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헤링의 건축을 추상적인 이미지에 근거해 표현주의 건축으로 단정하게 된다면 부분에 의해 전체를 규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5. 결론

근대건축의 주축으로써 기능성을 담보로 하는 유기적 건축은 진지함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건축을 도출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녔었다. 하지만, 표현주의 건축은 기능적 근대건축을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기능주의와 분리된 별개의 현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표현주의 건축은 내재된 기능주의의 가능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여러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속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감정과 직관의 산물로 규정되어 왔다. 표현주의라는 단어의 모호함이 시사하듯 기능적인 근대건축의 맥락에서 표현주의 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현주의 건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피폐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이상적인 미래사회를 그려나가는 와중에 탄생한 과도기

적 현상이다. 표현주의 건축은 표현주의 회화작품과 다르게 건축적 개념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만족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건축물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1920년대 초반 서로운이 심취했던 추상적인 스케치 작품이나 왜곡된 투시도면에 스케일마저 무시된 헤링의 프로젝트 도면들을 근거로 이들을 표현주의 건축가로 명명한다면 부분으로 전체를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그 내·외부공간을 사람들이 실제 이용해야 하는 건축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다면 서로운과 헤링의 작품들은 표현주의 건축으로 불리우는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표현주의적 성향은 서로운과 헤링을 위시한 표현주의 건축가로 불리우는 이들 외에도 많은 근대건축가들에게 하나의 열병처럼 유행했던 현상이다. 표현주의 건축의 발단은 기데온(1967)과 페브스너(1960)에 의한 초기의 근대건축역사에서 기능주의의 개념을 국제주의 양식에 제시된 것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 파악함으로써 비롯된다. 이들의 판단은 서로운과 헤링의 스케치와 계획도면에 드러난 유기적 형태에만 집중되었으며, 이들의 건축이 표현적인 양상에서 진보적 기능주의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간과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전체 설계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스케치의 특징과 건축물 전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 요소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결과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로운과 헤링의 작품을 통한 표현주의 건축의 재평가는 두 건축가의 작품만을 추려내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대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Blundell-Jones, P., Hans Scharoun, Phaidon, London, 1995
2. Bürkle, J. C. Hans Scharoun, Artemis Verlags, Zürich, 1993
3. Cruickshank, C., et al. (1996) Sir Banister Fletcher's History of Architecture. London: Architectural Press
4. Colquhoun, A. Modern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 Giedion, S., Space, Time and Architecture, (5th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67
6. Hitchcock, H. R. & Johnson, P., International Styl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32
7. Pehnt, W., Expressionist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London, 1973
8. Pfankuch, P (eds.) Hans Scharoun: Bauten, Entwürfe und Erläuterungen. Akademie der Künste, Berlin, 1970
9. Pfankuch, P., Hans Scharoun: Bauten, Entwürfe, Texte, Akademie der Künste. Berlin, 1974
10. Pevsner, N., Pioneers of Modern Design, Penguin, London, 1960

<접수 : 2006. 8. 31>

24)H. Häring, Proportionen. In Deutsche Bauzeitung, Vol. 29, July 1934